



가족 합심기도

다같이

- 1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2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3 온 세대가 말씀의 영적 유산을 계승받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가정예배지는 성문교회 홈페이지의 거룩한 문 소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lygatechurch.org

가족예배 기도문

온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늘 책임지고 돌보아 주사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을 울려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 설 가정예배순서

목 도

다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1-2)

신양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양

찬송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봇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도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신명기 11:8-12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설 교
말씀나눔

다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가정” (신 11:8-12)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먼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가정은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는 가정입니다.

신 11: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 민족들에게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며 물자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우리 각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며 강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가족공동체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됩니다.

신 11: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셔야만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